

작년 양식장 10곳 중 1곳 문 닫았다

생산원가 상승·소비심리 위축 원인 전남 생산량 7만2449톤... 9.5% 감소

지난해 전남도내 어류양식 어가(사업체)수와 생산량·생산액이 생산원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어류양식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어류양식장을 운영한 어가(사업체 포함)는 2144가구로 전년보다 10.8%(260어가) 감소했다.

또 어류양식 생산량은 7만2449톤

로 전년보다 9.5%(7626t) 줄었고, 생산액 역시 7712억원으로 전년보다 11.1%(962억원) 감소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어류 양식어가는 861가구로 전년 1030가구보다 169가구(16.4%) 줄었다.

또 어류양식 생산량은 2만2161t으로 전년보다 3861t(14.8%) 감소했고, 생산액도 2460억7800만원으로 전년(2953억7800만원)보다 493억원

(16.7%) 감소했다.

통계청은 어류양식 어가 감소원인으로 양식시설 유지와 운영비 등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소규모 해상 가두리 어가의 휴·폐업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어류양식 생산량 감소는 2010년 태풍 '곶바람'과 겨울철 감추위 동사(凍死) 등으로 인한 출하가능 물량 부족,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생산량과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원전사고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생산금액 역시 줄어들었다.

반면 지난해 종묘양식은 1억481만7000마리로, 태풍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년보다 1378만

4000마리(15.1%) 증가했다.

입식 어류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조피볼락(6087만6000마리) ▲넙치류(3032만9000마리) ▲참돔(490만마리) ▲농어류(278만2000마리) ▲갑성돔(232만7000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말 현재 사육중인 어류는 1억4063만2000마리로 전년보다 106만9000마리(0.8%) 늘었다. 경기 부진으로 출하가 줄어들며 사육 마리수는 증가한 것이다.

한편 양식기술의 발달로 참다랑어(2009년)과 참조기(2011년)가 새로운 양식어종으로 진입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저희도 도민제전 준비해요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비닐하우스에서 제 51회 전남도 체육대회(4월 24~27일·구례 개최)에 사용할 조경용 꽃 육묘가 한창이다. 구례군은 팬지·페튜니아·메리골드 등 10종 15만본을 대회장 주변과 가로화단에 조성할 계획이다. <구례군 제공>

영농철 대비 농업용수 확보 총력

농어촌공, 봄가뭄 대비 물가두기·관정개발 착수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올해 농지 9만6000여ha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용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재까지 강수량은 103mm로 평년 141mm보다 27%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광주·나주·담양·장성 등 영산강 4대하의 평균 저수량은 1억 5465만t으로 평년(76%)과 비교해 15% 부족한 61%를 기록하고 있다. 또 도내 저수지의 저수량 역시 평년 80%보다 6% 정도 낮은 74% 수준이다.

전남지역본부는 28일 본부 소회의실에서 관내 18개 유지관리·지역개

발타입장을 소집해 봄가뭄 대비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4월 한 달간 부족한 용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날 회의에서 본부는 봄가뭄에 대비해 ▲공사 보유 한해 장비를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지원 ▲계절적 수리시설 관리원을 조기 위촉해 가뭄극복 작업에 투입 ▲도내 시·군 지역 관개발에 전문기술 인력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불철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

을 경우를 대비해 양수기와 수중펌프, 송수호스 등 한해(旱害)장비를 투입, 물을 끌어올려 저장하는 '양수 저류'를 비롯해 물 가두기·관정 개발 등 본격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착수했다.

또 전남본부는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4월까지 저수지·양배수장·취입보의 시설물 정비와 한계 용배수로 토사준설 등을 실시하고 용수 낭비를 막는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행운 본부장은 "가뭄 등 풍수에 대비한 비상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농민들에게 전문기술 인력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민·관 합동 여수박람회 교통난 완화 나서

교통대책본부 발족... 항공·철도·도로 등 관리

국토해양부는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열리는 여수 세계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여수박람회 지원위원회(위원장 주성호 제2차관)를 두고, 교통난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특별 교통대책본부(본부장 김한영 교통정책실장)를 29일 발족했다.

이날 발족한 특별 교통대책본부는 박람회장이 국토의 남쪽 끝인 여수에서도 모퉁이에 위치해 도로교통에 예외가 예상됨에 따라 구상했으며, 여

수박람회 기간 중 여수시내 교통과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여수박람회와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해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는 여수산단 등 5개소에 설치된 환승주차장의 설치·운영, 셔틀버스 운행 등을 담당했고, 여수시는 시내권 교통을 담당해 왔다.

이번 특별 교통대책본부 설치로 각 기관별로 각각 담당하여 오던 업무를

통합 조정하게 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됐다.

특별 교통대책본부는 국토해양부,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 경찰청, 해양경찰청, 여수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민·관합동으로 42명이 박람회 기간 중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 주성호 제2차관은 "특별교통대책본부 발족에 맞춰 박람회 교통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30일 여수박람회 교통상황실을 방문한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im@

1만3100TEU급 '한진수호'호 처녀 기항 광양항에 대형선박 기항 잇따라



광양항과 유류지역을 연결하는 '한진수호'호(사진) 등 대형선박의 광양항 기항(寄港)이 잇따르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명명식을 가진 한진해운의 1만31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 선박 '한진수호'호가 4월 1일부터 광양항 한진해운 광양터미널 부두에서 처녀 기

항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한진수호'호는 국내 국적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중 최대 규모로, 길이 366m·너비 48.2m·높이 70.3m에 달해 뉴욕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380m)과 맞먹는 12만6000DWT(재화중량)급 초대형 선박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저유황유 탱크가 설치됐다.

'한진수호'호는 4월 1일부터 독

일 함부르크, 프랑스 르하브르,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 유럽지역 주요 항만을 주 1항차 운항하게 된다.

'한진수호'호의 투입으로 광양항의 유럽 항로는 주 6회로 늘어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이에 앞서 벨기에 앤터워프, 영국 켈릭스토우, 네덜란드 로테르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유럽을 매주 1항차 기항하는 MSC선사의 1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이 이달 초 신규 기항한 바 있다.

진도민속예술단원 모집 '심사위원 외압설' 논란

특정 응시자에 오디션 불참 요구... 결국 불합격

진도 군립 민속예술단 상임단원을 뽑기 위해 실시한 오디션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진도 군립 민속예술단은 최근 창작부(6명)·무용부(5명)·기악부(6명) 등 총 17명의 상임단원을 뽑기 위한 오디션을 실시했다.

하지만 무용부 오디션의 경우 모집 인원 5명중 1명이 미달된 4명만이 응시한 상황에서 K양이 불합격됐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 외압설'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진도 군립예술단 상임단원들에 따르면 오디션이 치러지기 전 D상 입단원이 K양에게 전화를 걸어 오디션에 불참해 줄 것을 요구했고, 오디션 당일에도 G상입단원이 K양에게 오디션에 불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진도 군립예술단 운영위원장 K씨는 무용부 심사위원 H씨를 예상 사무실로 불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사위원 H씨

는 운영위원장의 의견을 같은 무용부 심사위원 P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디션에 참가한 K양은 과락으로 떨어졌으며 다른 오디션 경쟁자보다 많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진도 군립예술단 오디션의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민 박모(50)씨는 "무용부 오디션의 불합이 사실이라면 한 명의 응시자를 두고 집단 구타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hypark@

호남최대 원목가구 Sale
쇼핑몰 **hong79.com**(홍친구 닷컴)

원목식탁 30종류
거실 TV장 20종류
친환경 원목가구 셀러, 인까사, 광주대리점 가사도 한국총판
신혼가구에서 이태리가구 까지 원목가구만 200평 대형매장

홍스페이스 hong79.com 1899-0240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검색